



자연과 함께하는 화장실 - 계수초등학교



글_곽영호 (계수초등학교 교장)

학교현황

50년이 넘는 학교 역사에서 불구하고 전교생 78명에 교직원 12명으로 시골학교를 연상하리만큼 아담한 학교지만 자연탐구와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 대도시의 학교수준을 능가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외면하는 타 학교에 귀감이 될 것이다.

화장실 속의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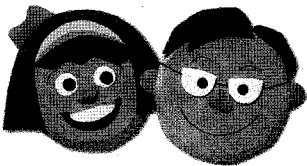
화장실 왼쪽 코너에 수반 3자 보기의 연못에는 물레방아, 우산분수를 설치하여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정겨운 물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개구리 및 도롱뇽알, 다슬기, 우렁이 등을 키우며 학생들로 하여금 관찰과 탐구를 하도록 하였다. 연못 주변에는 각종 작은 화분에 음지식물인 호야, 신고디움, 아이비 등을 심어 화장실을 자연관찰 학습장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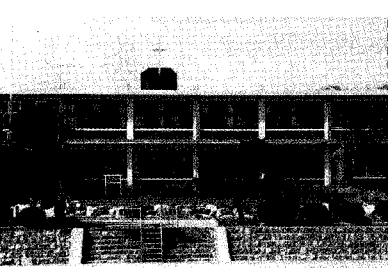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화장실

화장실에는 동요곡 중심의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벽에는 아름다운 명화가 분위기를 아늑하게 자아내고 있다.

편의용품들을 대부분 갖춘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한 눈에 봐도 청결한 느낌이 든다.

화장실 사용수칙을 제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에티켓 교육도 병행하여 화장실 청결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1



2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향기로운 학교, 어느 곳에서도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학교인 계수초등학교(시흥시 계수동 145-1)를 방문하여 화장실에 생태계가 보존되는 연못을 설치하여 관찰학습장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들어본다.

화장실문화 개선 배경

곽영호 교장선생님은 "교실 앞 화단에 200여종의 야생화를 심고 화장실에 연못을 설치한 것은 사철 꽃피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학생들이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피우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선중 교감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매일 관찰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과학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며 "화장실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사회규범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월드컵을 주최하는 문화시민입니다.'로 시작되는 화장실 사용법은 '누가 보지 않아도 세계 일등 시민으로서 아끼고, 꾸미고, 깨끗하게 사용하겠습니다.'는 문구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절이 담겨 있다.

잠시 펼쳐 본「관찰기록」에는 "올챙이의 배설을 처음 보았다"는 얘기부터 "정말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지 궁금하다"는 나름대로의 동심을 엿볼 수 있었다.

5



1. 계수초등학교 전경

2. 자연보호 캠페인

3. 급수대 및 세면대를 복도에 설치하여 화장실의 물기를 제거

4. 계수초등학교 체육대회

5. 화장실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자연탐구학습장으로 활용